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사례연구*

The Role and Function of Small Community Library for Foreign Immigrants: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al Library at Wongok-dong, Danwon-gu, Ansan-si

김 윤 영 (Yoon Young Kim)**

정 은 주 (Eun Ju Jung)***

< 목 차 >

I. 서론	IV.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II. 선행연구	1.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 공간으로의 기능에 따른 그 역할
III.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2. 지역사회통합의 생활문화공간으로의 기능에 따른 그 역할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지리환경적, 인구학적 특징	V. 결론 및 제언
2.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3.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초 록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이주민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전반 전문분야의 문화다양성 수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 도서관계에서도 다문화서비스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모색들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대한 모델과 발전방안을 제시해왔다. 본 연구는 도서관 이용자 약 90%가 국제이주민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국제이주민을 위한 공공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한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공간과 지역주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선주민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이루어 가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운영사례연구를 통하여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이주민들과 지역사회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 가치와 의의를 보여주하고자 한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겪는 여러 어려움과 한계를 제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키워드: 공공작은도서관, 국제이주민, 다문화서비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ABSTRACT

According to the rapid increase of foreign immigrants, South Korea recently has grown more and more interested in the acceptance of cultural diversity in diverse fields at the whole society. Korea Library Association also has sought the way of multicultural service for foreign immigrants in libraries and many previous researches has suggested those. This paper examines the ways in which small community library functions for foreign immigrants, analyzing on the case of multicultural library located in Wongok-dong, Ansan-si, where about 80% population of residents are foreign immigrants. Ansan multicultural library has two functions in the community. One is the educational place for helping immigrants'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South Korea. The other is the cultural place for social integration between immigrants and South Koreans based on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on. Ultimately this paper shows how values small library in the community has significantly for foreign immigrants.

Keywords: Community library, Foreign immigrants, Multicultural service, Ansan-si Wongok-dong, Ansan multicultural library

* 본 논문은 2016년 전국작은도서관 대회 우수도서관 사례공모에서 선정되어 작성된 발표문을 바탕으로, 2016년 전국도서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논문으로 발전시킨 것임.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관장/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yyoungkim@gmail.com) (제1저자)

***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부관장/사서(ansanviva@naver.com) (공동저자)

•논문접수: 2016년 11월 18일 •최초심사: 2016년 11월 29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26일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7(4), 559-578, 2016.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12.559]

I. 서론

최근 한국사회는 외국인 유입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수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수는 1,742,000에 이른다. 여기서 외국인 주민이란,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이었다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의 자녀를 포함하는데(행정자치부 2015.10자료), 이 외국인주민의 수는 주민등록인구수 대비 3.4%에 해당되고, 전년대비 172,449명 증가수이다. 외국인주민수의 증가는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매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10 자료).

이에 한국사회는 국제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은 물론이고, 여러 다양한 사회기반체제 안의 전문분야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다문화 감수성의 용어가 등장하며 다양성의 배려와 존중이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에 한국도서관계에서도 다양한 문화배경을 지닌 이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방안들이 모색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언급되었던 반면에, 지역사회에 깊숙이 위치한 작은도서관의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실천과 그 역할,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드물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틀을 제시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한 지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다문화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운영 실태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연구자가 인식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안산시에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지리, 환경적 특징은 무엇이고, 2)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그리고 성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3)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고민한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분석하여,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내 작은도서관의 성격과 그 가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가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결론부분에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인류학적 방법인 현장연구의 질적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현장연구는 타문화의 현장 속에 연구자가 깊숙이 들어가 연구대상과 함께 일상을 공유하며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관찰과 면담 및 대화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특히 본 논문의 연구자들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관장과 부관장 겸 사서의 실무역할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며, 연구와 현장의 실천을 병행하는 연구방법인 PAR(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을 활용하였다. 연구자가 본 사례분석의 대상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실무자이기 때문에 논문의 객관적 논지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연구자의 시각과 관점, 해석이 따르는 어떤 연구물에도 완벽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이러한 연구의 과학적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본 논의를 하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제이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의 사례분석, 도서관계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현장을 기반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연구자가 함께 하며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1970년대 공식화된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는 다양한 용법으로 현대사회에서 쓰이고 있다. 구분규(2013, 8) 연구에 의하면,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종족적·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을 그 사회의 긍정적이고 구별되는 특징으로 수용하는 사회적 이상 또는 가치체계, 그리고 문화적·종족적 차이를 인정하고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정책” 이렇게 세 가지의 용법으로 쓰이고 있음을 제시한다.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증가를 경험하며 한국사회는 2005년부터 다문화주의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들을 실행하기 시작했으나, 초석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가치보다는 국제결혼 자녀들의 한국사회 동화정책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다문화주의는 극히 관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오경석 2010).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용어가 활용되었고, 한국 도서관계도 ‘다문화 서비스’라는 용어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도서관계 연구물들은 다문화 서비스라는 용어를 IFLA(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인용하여 소개한다. IFLA(2008) [다문화사회: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 Multicultural communities: Guidelines for Library Service]에서 “민족·언어·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가 기존 서비스와 독립적이거나 추가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되며, 다문화 서비스는 기존의 도서관 서비스와 통합적인 것으로 보여야 한다. 또한 자료수집 및 서비스 제공 수준을 결정할 때 지역사회 분석과 요구평가를 토대로 해야 하며 원주민, 이주민 사회, 복합 문화적인 배경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7권 제4호)

을 가진 사람들, 고국을 떠난 다국적자, 망명 신청자, 난민, 임시거주 허가를 받은 거주자, 이주노동자, 국가의 소수집단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이미정, 이미정 2013. 7).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2009, 92)는 다문화서비스를 “모국을 떠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소수자가 된 이주민들에게 자아를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는 도서관 서비스”로 개념화한다. 한편 미국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사례를 분석한 노지현(2012)은 한국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특히 미국과 한국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 재미있다. 미국의 이주민 서비스는 이주민 대상자를 인종·민족적 특성 뿐 아니라, 언어, 연령, 교육수준, 신체장애, 경제적 수준, 체류기간 등 세분화하여 실행하고 있다(노지현 2012. 13-14).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 서비스는 인종·민족적 이주민만을 위한 서비스로 국한시키고, 이들의 주류문화 동화만을 목적으로 한 ‘시혜’차원의 단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수준임을 비판한다. 이에 다문화 서비스 대상자는 이주민만이 아니라 각 사회계층, 다양한 문화적 소수자를 포함하는 모든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사회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하고,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작은도서관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라 밝히는 바이다.

이제까지 한국 도서관계에서는 다문화 서비스 운영과 모형개발, 한계를 통한 발전방안 모색 관련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왔다. 한국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미정, 이미정(2013)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조용완과 이은주(2010, 25) 연구에서 제시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7가지 항목(<표 1> 참조), 즉 장서·콘텐츠, 사서·인력, 프로그램, 서비스, 정보이용 시설·장비, 편의시설, 홍보 및 대외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한다.

양수연, 차미경(2011)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을 개발하였다. 다문화인과 내국인들의 사회, 문화적 통합을 목적으로, 모형의 영역은 다문화인의 기초조사와 요구조사, 다문화서비스 계획과 프로그램, 추후 평가 및 피드백, 다문화장서 준비 및 제공, 다문화서비스 사서 및 인력, 다문화 서비스 홍보, 다문화서비스 주변 환경 이렇게 9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조용완(2007) 연구는 국내 도서관계의 이주민 서비스에 대한 공공도서관과 민간도서관의 한계를 지적한다. 장서개발의 부재, 이주민의 정보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제공의 부족, 이주민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제공의 부재, 담당직원의 이주민 서비스 전문성 부족 등을 공공도서관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민간도서관은 장서구입이나 자료정리의 비체계성, 그리고 민간도서관 차원의 상호협력 미흡 등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완, 이수상(2011)은 이주민 이용자를 위한 효율적인 다국어/다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 도서관 정책 단위 차원의 발전방안과 지역 도서관 차원의 발전방안을 제언했다.

<표 1> 공공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항목

항목	세부내용
장서·콘텐츠	1) 다문화 장서(단행본, 신문, 정기간행물, 사전 등) 2) 다양한 주제와 포맷(인쇄, 지도, 그림,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 등)의 장서 3) 이중언어 및 다중언어 장서
사서·인력	1) 이주민 출신 직원 채용(자국민 서포터즈) 2) 사서 재교육 및 다국어 능통 직원채용
프로그램	1) 문화 교류 프로그램 2) 문해(Literacy) 프로그램 3) 정착 지원 프로그램 4)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
서비스	1) 모국어 목록 구축 및 검색 지원 2) 이주민 장서 목록의 종합 목록 내 포함 3) 도서관의 각종 프로그램 운영시 다국어 지원 4) 다국어 도서관 홈페이지 5) 다문화 정보 안내 서비스 6) 상호대차 서비스 7) 찾아가는 서비스
정보이용 시설·장비	1) 언어학습 s/w 가 내장된 컴퓨터 2) 다국어 지원 컴퓨터 3) 각종 멀티미디어 시설
편의시설	1) 주요 이주민 언어 이용 안내문 2) 다양한 안내 표지 3) 문서양식(회원카드, 통지서, 상호대차 등)
홍보 및 대외협력	1) 지역 내 교육기관과의 언어교육협력 2) 이민자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3) 다문화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출처: 이미정, 이미정(2013, 9)에서 인용, 조용환, 이은주 (2010, 25)에서 표 재구성

국가 차원에서는 다국어/다문화서비스 관련 국가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다국어/다문화 자료수집 및 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다국어/다문화도서관 협의체 구성 등등의 과제가 있다. 반면 지역 도서관 차원에서는 다국어/다문화 자료 활성화, 다국어 목록 구축을 위한 노력, 찾아가는 서비스의 개발, 지역사회 내 다문화 유관기관의 적극적 협력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김영미, 조인숙(2011)은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이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다문화서비스 담당사서를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상으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상당히 많으나, 지역사회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다.

일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은 태동부터 차이가 있다. 작은도서관은 1960년대 한국전쟁 후 시대적 혼란기에 일반 국민들의 문맹퇴치와 농촌계몽 운동으로 ‘마을문고’의 등장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을문고 운동은 1980년대 관 주도의 새마을 문고로 육성되다가 1990년대 엄숙한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지역주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독서문화운동과 도서관 운동이 발전하게 되면서 2000년 정부와 지자체는 작은도서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진흥팀을 설립하면서, 정부에 의해 작은도서관이 조성되었다(박정숙 2013).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은 2009년 도서관법 개정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범주로 포함하여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의 조건으로 개념지었다(박정숙 2013, 34). 그러나 김준(2007)은 작은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의 노력에 따라 잘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속칭 망가지기도 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작은도서관은 ‘시설중심’보다는 ‘운영중심’의 특성이 강하다. 달리 표현하면 ‘책’을 매개로 하는 점에서는 ‘작은도서관’과 ‘도서관’이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에서는 ‘사람-즉 공동체’라는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김준 2007; 박정숙 2013, 34).

궁극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시설의 규모보다는 ‘운동’의 개념으로 보고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15; 박정숙 2013, 35). 이에 박정숙(2013)은 작은도서관의 특성으로 1) ‘좋은책’을 제공하는 2) 일상적이고 3) 사회안전망이며 4) 문화사랑방이라고 말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5) 한 사람을 지켜볼 수 있고, 6) 사람을 만드는 곳이라고 개념화한다. 이렇게 작은도서관은 기존의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던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서비스의 방식도 기존의 공공도서관과는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된 연구는 미흡하다.

노지현(2012)의 연구는 미국의 다문화서비스 사례를 분석하면서 미국의 중앙도서관과 분관을 구분하여 분관에서 좀더 지역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미국 사례의 분관이라는 것이, 한국의 ‘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작은도서관을 의미하는지는 않는다. 한진자, 김용(2010)의 연구도 미국의 신이주민들을 위한 지역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지역내 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미국의 지역공공도서관이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독서운동의 성격을 띠고 서민들로부터 태동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작은도서관 성격과는 다르리라 보기 때문에 참조는 가능하나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기존의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다문화서비스 관련 연구물들은 서비스 요소, 항목, 내용들에 대한 모델, 이론적인 틀은 제시하고 정책제언들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을 접하면서 도서관이 운영되었을 때 다문화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어려움과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모색을 한 연구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둘째,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서비스는 공공도서관과는 성격이 다르나, 구체적인 현장을 바탕으로 한 실태의 비교 뿐 아니라, 다문화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운영의 한계에 대한 연구물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것은 한편으로는 본 연구의 의의이며 가치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모이는 교육문화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주민 밀집지역인 <다문화 마을 특구지역>으로 명명되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내 위치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설명한다. 실제로 이주민과 함께하는 현장에서 다문화서비스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마지막에는 다문화서비스의 실천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서비스

1.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지리환경적, 인구학적 특징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이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위치한 안산시의 지리환경적,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산시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밀집거주도시로 불리운다. 안산시 총 인구는 2015년 7월 기준, 281,031세대 총 759,311명 중 외국인 주민은 73,276명으로 이는 주민등록 인구대비 9%에 해당하며, 이 수는 전국의 외국인 수 중 약 5%에 해당한다. 안산시 외국인 주민 73,276명 중 54,342명은 중국(조선족 포함), 우즈베키스탄 5,391명, 베트남 2,526명, 인도네시아 1,419명 등 총 83개국의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체 외국인 주민 수(73,276명)중 49%가 방문취업 및 고용허가제에 의해 이주하였고, 외국국적동포가 24%, 영주권자가 9%, 결혼이민자가 6.8% 등으로 구성되어있다(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통계자료 2016). 특히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원곡동 지역은 거주인구 총 19,049명 중 외국인 주민이 14,692명으로 약 77.10%에 해당하여 외국인밀집거주지로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통계자료 2016).

이러한 외국인 거주인들의 비율이 높은 안산시의 특성은 역사적으로 1970, 1980년대 반월시화공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유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다문화마을 특구지역인 원곡동은 한국 사회의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980년대 초, 반월공단의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성장하였다. 그러

나 1990년대 초부터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중심으로 한국산업구조가 변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제조업체가 밀집한 반월공단의 경기침체는 시작되고 공단노동자들의 이탈현상이 증가하였다. 이 무렵, 공단 노동자들이 떠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노동자들이 꺼리는 3D업종의 중소기업장에서 저렴한 노동인력으로 자리하였고, 원곡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대표적인 거주지역이 되어갔다(구본규 2013, 14-17).

이에 90년대 중반 이후, 여러 민간사회단체들이 원곡동에 등장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부터는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민의 다문화공동체를 만들자는 ‘국경없는 마을’ 운동이 전개되었다(오경석, 정건화 2006 참조). 원곡동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순한 거주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음식점과 상점이 밀집하며 이국적인 문화가 어울어져 있는 다문화적 공간으로 변화했다.

급기야 이주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복지지원제도가 안산시 원곡동에 등장하였다. 2005년, 안산시에 “외국인 전담부서로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를 확대해 2008년 원곡동에 외국인주민센터가 설치되었다”(구본규 2013, 17). 현재 2016년 이 기관은 규모가 더욱더 확대되어 ‘다문화지원본부’로 명칭을 바꾸어 중앙정부차원의 이주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시설에는 여러 이주민 관련 지원 업무 외에도, 별도로 이주민통역지원센터, 외화송금센터, 보건소, 그리고 본 연구의 현장이기도 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약 23평 규모의 최대수용인원이 약 15명정도 되는 작은 공간으로서, 2008년도 10월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외국인 주민센터(현재 명칭은 다문화지원본부) 내에 개관하였다. 그 후 안산시에서 직접 운영해오다가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위탁받아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2.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장서현황은 2016년 1월 29일 기준, 총 13,813권이 비치되어 있는데 그 중 10,740권이 23개국의 외국원서들이다. 그 외 신문 및 잡지가 20종 비치되어 있다. 2015년 운영현황에 따르면, 회원 수는 총 2,326명, 이용자수는 20,773명(1일 평균 70명), 대출자수는 3,543명(1일 평균 12명), 대출권수는 13,703권(1일 평균 46권) 그리고 2015년 한해의 도서관 프로그램은 총 43종 205회 실행하여 7,011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국제이주민들을 위해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다음과 같은 운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주민들의 거주 지역 내 문턱이 낮은 작은도서관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이들에게 편안한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면 이 도서관은 이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국어 혹은 기호로 안내문과 홍보문을 표기하여 이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심리적으로 안정

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간다. 또 도서관 이용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선물하거나 전시하고, 하루의 도서관 이용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자들의 소통과 친분을 쌓도록 노력한다.

둘째, 이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지역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한다. 이용자들은 한국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문제의 어려움들을 도서관에 와서 토로하거나 상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문의내용은 다양하고 그 범위는 사적인 일에서부터 공적인 일까지 폭넓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들은 마을의 지리적 위치를 묻거나, 한국어 배울 수 있는 곳을 문의하기도 하고, 또 은행이나 보건소, 병원의 위치와 이용방법을 묻거나, 한국의 휴일을 알고 싶어 달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정보를 숙지하고 있다. 각 나라별 언어로 작성된 안내책자, 지역신문을 비치해두고 있고, 통역 및 상담 센터와 보건소, 복지센터, 각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이주민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돕고 있다.

셋째, 모국어의 도서 및 자료를 제공한다. 외국원서 뿐 아니라, 모국어로 쓰여진 신문과 정기간행물을 비치하고, 이를 위해 국가별 대사관이나 문화원과의 협력을 이루고 있다. 특히 외국원서 구입 및 비치와 관련하여, 23개국 이상의 언어로 쓰여진 원서 리스트 중 각각 선별하여 구입하는 것이 한국사서에게는 부담스러운 작업이다. 이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인 이주민들에게 '세계명예사서'라는 직분을 부여하고 이들로 하여금 책의 정보를 도서관 실무자인 사서에게 제공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도서관 실무자는 원서구입에 이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넷째, 이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어 수업, 부모교육수업, 독서활동 수업, 글로벌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주민들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기본적인 생활적응의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다섯째,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인 이주민들이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해하고 충분히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서관은 이들과의 언어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통역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들을 도서관 실무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시 보조인력, 혹은 자원봉사자로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주민들의 정착 및 적응을 위해서는 지역기관과의 긴밀한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한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민간교육기관, 정부공공기관, 보건소, 타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 여러 사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착 및 생활적응을 다양한 방식으로 돕고 있다.

도서관의 전체 운영에 있어서 예산 및 자원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기본적으로는 위탁 기관이기 때문에 안산시로부터 전체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한다. 그러나 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예산지원방법들을 모색한다. 첫째,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기증을 받는다. 도서관이 기본적으로 20여개국이 넘는 국외원서를 제공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한 구입의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근무자가 파견되어 일하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지원을 받아 국외자료를 제공받았고, 도서관 이용자들의 만족은 기대이상으로 컸다. 그 밖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아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외국의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제공하려는 방법도 고려하였는데, 우선적으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중국이주민들을 위해 중국 문화원과 협력하여 그 기관으로부터 중국발행신문 및 정기간행물, 잡지를 제공받아 이주민들을 위해 비치하고 있다. 둘째로, 여러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원받는다. 지난 2년의 위탁운영기간동안 여성가족부, 경기도, 아름다운재단, 안산환경연합, 한국연구재단 등 여러 기관의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다양하다. 도서관의 프로그램은 일상프로그램과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나뉜다. 도서관 일상프로그램의 목적은 도서관이 이용자들에게 친숙하고 안정적인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되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며 주체적인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 작은 노트를 비치하여 이용자들이 릴레이 일상 일기나 인상깊게 읽은 책의 글귀를 적는다는 등의 사소한 활동이다.

특별교육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생활정착 및 적응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이주민과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이렇게 세가지를 주목적으로 기획, 운영하고 있다. 이에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글로벌 마술동화구연 교육프로그램, 글로벌동아리 활동모임, 지구별 나눔장터, 지구별 텃밭 가꾸기, 스토리텔링 모임 등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지역연계가 필요하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한양대학교, 안산작은도서관 협의회, 안산의제21 도서관 특별분과, 안산시 문학관련 동호회,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캄보디아 이주민을 위한 ‘지구인의 정류장’, JTS 안산다문화센터 등 지역 내 여러 지역 다문화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특별교육프로그램 중 주요 4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서술하고자 한다. 첫째로 다양한 국적과 문화별 이주민들이 참여하였던 교육 프로그램으로 <책3.0> ‘책읽어주는엄마’ 마술동화구연 강좌를 실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여성가족부 지역다문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비 전액을 지원받아 실행되었다. 한국과 중국, 필리핀, 일본,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베트남의 결혼이주여성 총 20여명이 마술을 활용한 동화구연 방법을 배우고 직접 지역교육기관에서 실습해보는 기회를 가졌던 교육프로그램이다.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자신감 회복과 상호이해증진이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는 자신감과 결혼이주여성 자신도 자녀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주여성들의 자신감과 성취감은 한국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프로그램 내에서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이루어가는 관계 속에서 세워졌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선주민은 이주민을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의 하나로 ‘웰컴! 크로스미디어 라이브러리 2015’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노인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모여 영상제작의 교육을 받고 서로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같이 감상해보으로써 다른 공동체와 소통하는 교육활동이었다. 영상제를 열어 작품을 관람, 감상하여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교류가 없던 지역의 세 공동체가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전하는데 좋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는데 큰 의의를 둘 수도 있지만, 특히 이주민과 선주민, 타인과의 소통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의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고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했다는 데 큰 가치가 있다.

셋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모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자들이 같은 지역의 주민으로서 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일상을 함께 공유하지만, 서로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만들어진 데 대해 이러한 낯설음과 서먹함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것은 약 10명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삶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먼저 쉽고 의미가 있는 성인 그림책 한권을 같이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후, 그 내용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이나 삶을 한 사람씩 돌아가며 1인당 약 20분 동안 나누었다. 물론 참여자들은 모두 도서관 이용자들이 국적, 세대,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하게 모였다. 이 프로그램 후 도서관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도서관 이용자들 사이의 친분이 형성되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들이 도서관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며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들 스스로의 자발적 공동체가 형성되어 도서관을 그들의 주체적 공간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넷째, 소통의 대상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이라는 한 특정장소의 지역주민으로 국한되지 않았는데, 그 기회를 제공한 프로그램이 ‘응답하라 책 친구들’이라는 것이었다. 안산시 전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들과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중심으로 각 국적별로 엽서를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각 나라에 대한 궁금한 점을 적어 엽서를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적게 한 후

다시 그 엽서를 모았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는 수집된 엽서를 국적별로 나누어 도서관 이용자인 각 나라별 이주민들에게 그 엽서에 적힌 질문에 대한 답을 쓰도록 하였고 그 엽서를 적힌 주소로 다시 송부하였다. 결국 도서관 이용자인 이주민들은 펜팔 대상자가 되어, 자신의 모국에 대한 소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은 이주민을 향한 부정적 시선이나 차별과 편견의 인식을 깰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가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마지막으로, ‘지구별 나눔장터’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으로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더이상 쓸모없으나 이웃에게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물물 교환하는 장을 여는 활동이다.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지역주민으로서 상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 가치를 배우고,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서만 인식되어 선주민으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고 사는데, 이러한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도 무언가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인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이주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상호이해와 소통의 장,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었고, 작은도서관은 이러한 실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적합한 공간이었다.

IV.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생활문화공간으로 사람과 공동체 중심의 교육을 담당하고 독서 문화의 실천운동에 중점을 두는 성격을 지닌다. 김소희 외(2013)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점을 형성하고, 2) 문턱이 낮아 지역주민들의 다양성이 어울려 소통과 상호이해가 이루어지고, 3) 자연히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간으로 설명한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4)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5) 지역사회를 알고 실천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작은도서관의 특성은 국제이주민들의 생활정착과 적응 뿐 아니라 이주민과 선주민 모두 지역주민으로서의 문화적 다양성이 어울려져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통합형성에 더할 나위 없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위의 장점을 바탕으로, 국제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국제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공간, 둘째는 지역주민의 사회통합을 이루어내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이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은 세부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공간으로의 기능에 따른 그 역할

작은도서관은 사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기본적으로 도서관 이용자들 대다수가 국제이주민인 경우, 작은도서관은 먼저 이들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이주민들의 특징을 잘 고려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내 주체적인 주민으로서 바로 설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의 정착과 생활적응을 위한 교육공간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에 따른 여러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서관의 운영특징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를 참조할 만하다. 한진자, 김용(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주민들을 위한 지역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이주민을 주요 이용자로 삼고 있는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운영의 주요 실천 내용과 상통한다. 이는 이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으로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대안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이주민들이 친숙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위의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현황에서 이미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주민들이 도서관을 친근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환경조성에서는 도서관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뛰어난 다문화적 감수성을 가지고 이주민들을 맞이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의 자세가 도서관 실무자들에게는 중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 도서관 실무자들의 교육연수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을 위한 한국어로 쓰여진 일반도서 뿐 아니라 모국어로 쓰여진 원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갖는다. 한국어로 쓰여진 일반도서의 경우, 이주민들은 한국정착과 관련된 기본정보제공의 도서를 찾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한국어 학습교재 혹은 한국어능력시험 교재, 서울이나 지역의 지도나 한국요리책 혹은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습책 등인데, 실제로 이주민들은 이런 책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도서들은 몇 권씩 구비하여 비치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모국어로 쓰여진 원서들의 구비도 필요한데, 나라별 원서의 선별, 원서의 구입, 비치된 원서에 대한 사서들의 정보숙지 및 제공 등 도서관의 원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의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운영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과정에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으나, 도서관 실무자들의 역량은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원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각 원서에 대한 정보 조차도 시스템 상에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 사서들은 원서에 대한 도서추천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도서관의 전체적

인 원서제공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작업을 구안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정보를 자세히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주민들은 지리, 요리, 자녀교육, 언어교육, 건강, 전문직업관련 기술 등 여러 주제별로 정착 및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도서관에 문의한다.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이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와서 정보를 얻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 실무자, 사서는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각종 프로그램은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으로 기획되고 실행될 수 있다. 특히 한국어 교육과 일자리를 얻기 위한 기본적인 전문기술학습, 한국사회의 자녀양육 등등 이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의 역량은 이주민들만의 교육프로그램으로만 향상되지는 않는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서 두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주민의 역량을 더욱더 향상될 수 있기에 여러 다양한 지역사회통합의 프로그램도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주민과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주민은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실무자로서 도서관의 주체자가 될 수 있다. 이는 이미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이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원봉사, 기간제 근로자 등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인 이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생활공간임을 이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만들고, 이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며, 지역주민으로서의 자신감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도서관의 역할은 이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유발하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도서관의 운영자와 이용자인 이주민간의 일방적 수혜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관계 속에서 바람직한 도서관 운영발전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복지를 담당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기관으로 지역에 자리해야 한다. 이주민이 지역주민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총체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의 협력적 연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 이주민의 정착과 적응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제언하였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작은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지역사회통합의 생활문화공간으로의 기능에 따른 그 역할

작은도서관은 문턱이 낮아 세대, 연령, 성별, 국적 등의 구분을 떠나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고, 이들의 소통과 상호이해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경우, 간혹 선주민이 도서관에 와서 ‘외국인이 아닌데 프로그램 신청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문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문화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선주민들을 배제하고 이주민만을 위한 도서관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양되어야 한다.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을 어떤 특정 그룹, ‘이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한정지을 수 없으며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에 의도적으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모든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한다는 전제조건을 둔다. 즉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에서 실행한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지역주민간의 소통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통합을 기본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이 선주민과 어울려 살아가는 지역의 사회통합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이 만나고 일상을 공유하는 장으로 지역 사회 내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에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하는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실행하는데 몇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모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추후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작은도서관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전략 및 노하우를 나름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여러 지역사회문화통합을 위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선주민의 참여를 권장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주민은, ‘다문화도서관’은 이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고, 도서관이 위치한 이주민 밀집지역은 더럽고 위험한 공간이라 도서관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입장과 시선에 대한 경험적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연결지어, 둘째로, 선주민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없애고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도서관에서 기획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실행과정에서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우월적 태도와 시선이 문제로 작용한 경우도 발생했다. 따라서 선주민에 대한 교육도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서비스를 실행하는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보여진다.

V. 결론 및 제언

한국, 그리고 그중 안산지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안산 인구수 중 약 10% 이상이 국제이주민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거주민들의 약 80%가 외국인으로 구성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역이 이를 입증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되는 곳에서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의 타인과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야하는 것은 이미 숙명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춘 지역 내에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은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다문화 서비스가 필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환경적 특성에서 작은도서관은 과연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 하는가는 중요하게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고,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 문제를 고민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그 실험과 노력 자체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국제이주민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두 가지로 살펴보았다. 즉 작은도서관은 이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는 교육공간으로서, 그리고 이주민과 선주민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통합의 생활문화공간으로서 기능을 담당한다.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역할 수행에는 몇 가지 도전적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제언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민들의 인적자원활용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민을 접하는 도서관 운영의 큰 문제는 이주민과의 소통이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경우, 외국인 통역 및 상담 지원센터와의 협력을 통하여 언어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중 언어가 가능한 이주민들을 자원봉사 혹은 기간제 근무자로 채용하여 그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나 모든 나라의 통번역 담당자가 존재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통번역자를 채용하는데 발생하는 예산상의 제약으로 난관에 부딪힌다. 언어장벽 뿐 아니라 원서구입에 있어서도 도서관 실무자는 역할과 역량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은 이주민을 ‘세계명예사서’로 명명하여 직분을 부여하고 도움을 받는다. 다문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 사서교육에 대한 필요도 요구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서관 사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전문성을 갖춘 이주민들을 국적별로 배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상 부딪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전국의 전문 실무자들이 모여 서로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창구로서 협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나열하였으나 다양한 이주민의 정착 및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통합 기능을 담당하는 도서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은 절대로 쉬운 작업이 아니다. 서로의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해결방안을 공유하고

또 모색할 때 그 안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그 실천 자체가 다문화서비스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내용 중에는 일반주민들이 다문화현상과 이주민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이주민으로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노지현(2012)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다문화서비스 대상은 이주민만이 아닌 연령,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일반사람들은 ‘다문화’ 서비스, ‘다문화’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할 때, 이주민만을 위한 무언가라고 인식해버린다.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의 현장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의 사회통합적 의의를 지닌 프로그램을 기획하여도, 일반 한국 선주민들은 다문화작은도서관이 자신들의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주민과 함께하기를 꺼려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의 사회통합 기능을 원활히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이주민을 위한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은 사람의 성장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성장의 주체를 이주민에게만 국한시킨다. 적응, 정착이라는 목표와 의무사항을 그들에게 부여하여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그를 위한 선심어린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여 실행한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성장주체는 이주민만이 아니다. 일반 지역거주민과 도서관 실무자,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소통과 상호이해를 통해 성장하는 실천의 장이 되는 것 그것이 다문화 서비스를 실행하는 작은도서관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일 것이다. 결국 함께 성장하고 살아가는 힘이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는다.

참고문헌

- 구본규. 2013. 다문화주의와 초국적 이주민: 안산 원곡동 이주민 집주지역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9(2): 5-51.
- 국립중앙도서관. 2008. 『작은도서관 운영 매뉴얼-부천시 작은도서관(공립)편』.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김소희 외. 2013 『책으로 꿈꾸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서울: 청어람미디어.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103-124.

- 노지현. 2012. 한국 도서관계의 다문화 서비스 방향 모색-미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1-23.
- 박정숙. 2013. 작은도서관을 말하다. 『디지털도서관』, 여름호, 통권 70: 31-46.
-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2016. 『대한민국 다문화중심도시 안산』 안산: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안내 책자 통계자료.
- 양수연, 차미경.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1): 311-332.
- 오경석, 정건화. 2006. 안산시 원곡동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몇 가지 쟁점들.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1): 72-93.
- 오경석. 2010 상반기. 누구를 위한 ‘다문화주의’인가?: 안산지역 이주민 지원활동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7호: 190-222.
- 이경란, 한복희. 2009.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0(2): 47-74.
- 이미정, 이미정. 20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연구, -인천시 중앙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4(2): 295-321.
- 조용완, 이수상. 2011. 국내 다국어/다문화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269-297.
- 조용완, 이은주. 2010. 『다문화사회에서의 도서관 서비스. 경기도: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울: 경기사이버중앙도서관.
- 조용완. 2007. 이주민을 위한 국내 도서관 서비스의 현황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2): 245-269.
- 한윤옥, 김수경, 조미아.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135-160.
- 한진자, 김용. 2010. 문화 다양성과 미국의 신이주민을 위한 지역 공공도서관의 역할.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19-29.
- 행정자치부 2015, 1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oo, Bon Giu. 2013. “Multiculturalism and transnational migrants: a case study of wongok-dong, an immigrant-dominated area of Ansan city in South Korea.” *Cross-cultural studies*, 19(2): 5-51.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8. *Operating Manual on Small Library – Bucheon–si Small Library*.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Kim, Young–Me, & Cho, In–Sook. 2011. “The Perception of Librarians and Multicultural Users on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103–124.
- Kim, So Hee et al. 2013. *Dream Community Living on Small Library with Books is beautiful*. Seoul: Chengeoram Media.
- Rho, Jee–Hyun. 2012. “Toward the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 with reference to the Americ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1–23.
- Park, Jung Suk. 2013. “Say Small Library.” *Digital Library, Summer* 70: 31–46.
- Ansan Foreign Migrant Center. 2016. *One of the Central City, Ansan, Republic of Korea*. Ansan: Ansan Foreign Migrant Center guidance book.
- Oh, Kyung Seok. 2010. “For whom is ‘Multiculturalism’? : A Critical Analysis on Support Activities for Immigrants in Ansan Area.”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Research*, 17:190–222.
- Oh, Kyung Seok & Jung, Keun Hwa. 2006. “A Critical Review of “Borderless Village” Project at Wongok–Dong, Ansa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12(1): 72–93.
- Lee, Geong–Ran & Han, Bock–Hee. 2009. “Multi–culture Service Administration of Public Library.” *Journal of Social Science*, 20(2): 47–74.
- Lee, MiJung Lee & Lee, MiJung. 2013. “A Study on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Services of Public Library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 focus on the Case of Incheon Jungang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4(2): 295–321.
- Yang, Soo–Youn & Cha, Mikyeong. 2011. “A Study on the Model of Multicultural Servic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1): 311–332.
- Cho, Yong–Wan. 2007. “Current Status of Library Services for Immigrant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2): 245–269.
- Cho, Yong–Wan & Lee, Soo–Sang. 2011.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269-297.

Cho, Yong-Wan & Lee, Eun Ju. 2010. *Library Service in Multicultural Society. Kyounggi-do: Kyounggido Cyber Library*. Seoul: Kyounggi Cyber Jungang Library.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10. *Current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Local Government*. Social Integration Division in Ministry of the Interior.

Han, Yoon-Ok, Cho, Mi-Ah & Kim, Soo-Kyoung. 2009. "A Study on the Current States and Problems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135-160.

Han, Jinja & Kim, Yong. 2010. "Cultural Diversity and the Role of Community Public Libraries For Newcomers to America."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1): 19-29.